

문화



말쟁쟁이 꾸미, 마법사 되기

꼬까아동극단, 25~26일 서구문화센터

꼬까아동극단이 어린이 뮤지컬 '천방지축 꼬마 마법사 꾸미'를 무대에 올린다.

25~26일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이번 작품은 요술 빗자루가 없는 말쟁쟁이 마법사 꾸미가 아기 다람쥐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면서 진짜 마법사가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2개의 무대를 마련했으며 작은 인형이 무대 밖으로 나오면 똑같은 모습을 한 배우가 등장하는 등 즐거움을 준다. 문의 062-952-87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의 외로움... 고통...

박은수 초대전, 24~30일 원갤러리

신문지를 잘게 찢은 뒤 물과 섞어 만든 종이죽을 이용해 현대인의 다양한 얼굴과 도심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박은수 씨가 오는 24~30일 광주 원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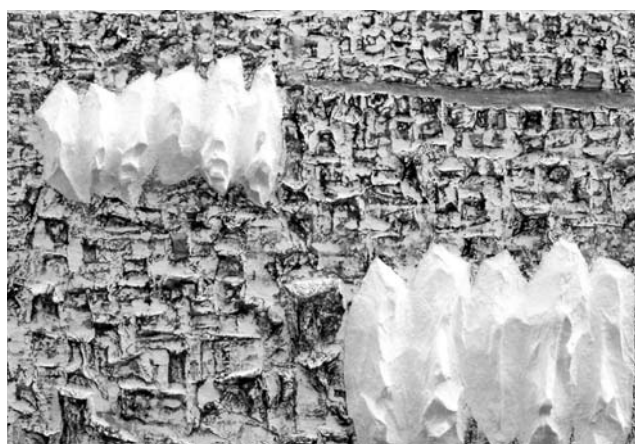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종이죽을 얇게 펴 붙여 형상화한 도시의 다양한 풍경을 선사한다.

그가 신문지를 재료로 쓰는 것은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종이죽이 만들어 내는 거친 질감을 통해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

또 종이죽 위로 색을 덧칠해 원근감과 산의 굴곡 등 섬세한 장면을 연출했고, 종이죽이 마르면서 생긴 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조선대 대학원을 나온 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북경올림픽기념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광주시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2-654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삶속의-도시'

광주대표작가들 미술그룹 '운동' 창립

불혹(不惑), 마흔이 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오십을 앞둔 예술가에게는 더욱 심한 몸살만 안겨왔다. 신진작가들은 특색 있는 참신함을 높게 사주고, 원로 작가들은 다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사십대 작가들은 갈 곳이 없다. 새로운 재료와 기법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잘 팔리는 작품만 내놓자니 젊은 날의 열망이 채 식지를 않았다. 어쩌면, 세상 일에 갈팡질팡하는 법이 없다는 불혹은 예술가에게 함정일지도 모른다.



이매리



강운



김상연



손봉채



이이남



정광희



이정록

'40대 피터팬' 비상을 꿈꾸다

■ 26일부터 금호갤러리서 창립전

"몸·정신 튼튼한 작품 만들겠다"는 회원들 다짐

창조의 열정 담은 '국민예술현장' 모임의 지표

광주지역 대표 40대 작가들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기발한 상상력에 연륜을 더하겠다는 미술 그룹 '운동'(회장 손봉채)을 창립,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의기투합한 '40대 피터팬'은 이매리(49)·강운(49)·김상연(46)·손봉채(45)·이이남(43)·정광희(41)·이정록(41)씨 등 7명. 해외 전시를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은 지역 작가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최근 정광희씨의 작업실이 있는 화순 동북면의 한 시냇가에 모여 다슬기를 잡으며 서로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강운씨는 "화단에서 40대는 참 애매하다. 열심히 창작해야 할 때지만 어디 한 곳 쉽게 나설 수 있는 곳도 없다. 도전하기에

도, 정착하기에도 애매한 어중간함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키워보기 위해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름 '운동'은 '기운생동(氣韻生動)'에서 따왔다. 몸(물질)과 마음(정신)이 튼튼한 작품을 만드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혁신적 예술의 길을 걷겠다는 야망가르드 정신을 담은 '국민예술현장'도 만들어 모임의 지표로 삼았다.

국민교육현장을 빚대 만든 '국민예술현장'에는 "아방가르드 정신에 투철한 실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천하는 기반이다"는 회원들의 다짐이 담겨있다.

회원들의 면면만으로도 '운동'은 광주를 대표하는 '드림팀' 수준이다. 이매리씨는

지난해 뉴욕 전시에서 호평을 받았고, 강운씨는 동양적 철학이 담긴 '일획' 연작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 손봉채·이이남씨는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작가 대열에 합류했고, 김상연씨는 지난해 열린 마이클스츨갤러리 전시에서 모든 작품을 판매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009 필름 아트페어를 사로잡은 정광희씨와 신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이정록씨도 국내 화단의 블루칩이다.

손봉채씨는 "누구보다 전위적인 예술과 기법을 선보인 작가들이지만 나태해지지 않도록 서로 다독이고, 힘을 얻기 위해 '운동'을 통해 세미나와 전시회 등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은 오는 26일~4월10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창립전도 연다. '운동합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들 작가들의 예술 정수가 담긴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행사다. 특히 피아노 부문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이다.

오는 4월말 시작되는 제56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부문 지정곡들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클래식 공연 전문기획사인 T&T 예술기획과 피아노 그룹 클라노비아가 마련한 '해설과 함께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지정 곡목인 모차르트의 피아노소나타 6번과 10번, 17번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씨를 비롯해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의혁, 독일 예센 폴크방국립음악대학에서 수학한 조연미(전남예고 출장)씨가 연주에 나선다. 해설은 피아니스트들이 직접 각 작품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각 악장별로 연주 기법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석 2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zart

'해설과 함께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호남예술제 피아노 부문 지정곡

26일 금호아트홀



'프란츠 리스트 페스티벌'

C.N피아노, 28·29·31일 금호아트홀

Liszt

2011년은 헝가리 출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연주자로도 명성을 날렸던 리스트는 자신의 작품 뿐 아니라 베토벤의 교향곡, 바그너의 오페라, 슈베르트의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형태로 편곡, 클래식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왔다.

전남대 출신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C.N피아노(회장 정환숙)가 리스트의 곡과 그가 편곡한 작품들을 모아 '프란츠 리스트 페스티벌'을 연다. 28~29일, 3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28일에는 박행숙·최선희·위은정·성지영·조현영·정지윤씨가 연주자로 나서 '헝가리인 랩소디 12번', '단테를 읽고 난 후', '사랑의 꿈' 등을 들려준다.

29일의 연주자는 장훈화·이현주·김연·김현철씨 등으로 연주 레퍼토리는 '발라드 2번' '헝가리인 랩소디 2번' 등이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김정남·강효미·이재선·박수영·정우진씨가 '베네치아와 나폴리', '베르디의 왈츠' 등을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뮤지컬 광화문 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